



광남일보



주간 제 8040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음력 1월 22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K-협력모델' 가동

현대차·삼성화재 참여...차량·보험 서비스 지원 연 300억 보상...하반기 광산·북·서구서 스타트

광주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본격도에 오른다.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와 삼성화재가 최종 선정되면서 차량 공급과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로 묶는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보험사, 운송 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력모델은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차량,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들은 이를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특히 시판 차량을 역설계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식은 차량 정밀 제어에 한계가 있었고, 실증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배상 부담 역시 기술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공급과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협력 구조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했으며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에는 자동차 제작사 1곳, 보험사 5곳, 운송 플랫폼사 5곳 등 총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동차 제작사에는 현대자동차, 보험사에는 삼성화재, 운송 플랫폼사에는 현대자동차가 각각 최종 선정됐다.

자동차 제작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전용 차량(SDV)을 개발·공급하고 차량 정비와 개발 인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API)와 고속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해 기술개발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삼성화재가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규모의 보상 한도를 제시해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했다.

또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와 고객 창구를 운영해 보험 가입부터 사고 대응, 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과 사고 예방 컨설팅, IT 보안 컨설팅 등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운송 플랫폼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차량과 플랫폼 간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 차량 관제와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 체계를 담당한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차량 센서와 상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엣지 케이스 자동 수집과 운행 품질 분석, 차량 관제 지원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자 메가센드박스도 지정되는 사업이다. 국비 610억원을 투입해 자율차 200대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실증 구간은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초기에는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곽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해 도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

되면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료 탑승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월 광주시 전역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올 하반기 광산구, 북구, 서구 일부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내년 중에는 서구, 남구, 동구까지 포함해 조선대병원 등 주요 지점을 추가하는 등 도시 단위 실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통합 이후 광주·전남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구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김영록·강기정, 통합특별시장 경선 전략 '수싸움'

14일 온라인 합동연설회·17~18일 TV토론회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등록 10~11일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경선에는 총 8명이 참여, 예비경선을 통해 5명을 압축한 뒤 본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가린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후보 등록은 10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국민참여경선에 활용할 안심번호 선거 인단은 표본수 2000명 기준으로 신청자 약 6만명 규모로 모집된다. 투표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강제 ARS 방식(아웃바운드)으로 진행되며 성별·연령별·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표집한다.

예비경선은 19~20일 권역당원 투표로 진행되며 본경선은 4월 3~5일, 결선투표는 4월 12~14일 실시된다.

예비경선 기간에는 후보자 검증 등을 위한 합동연설회와 합동토론회도 열린다. 합동연설회는 14일 오후 2시 중앙당사 당원실에서 개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합동토론회는 17~18일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광주MBC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다.

본경선에서는 3개 권역별 심층토론회도 진행된다. 토론회는 정책배심원 30명이 참여한 강제 ARS 방식(아웃바운드)으로 진행되며 성별·연령별·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표집한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을 앞두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선거 전략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관련기사 2·8·19면

김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지사직을 잠시 내려놓고 곧바로 선거 체제 전환한 반면, 강 시장은 예비경선 기간까지 시장직을 유지하며 통합특별시장 출마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같은 현직 광역단체장이지만 경선을 바라보는 시간표와 전략적 판단이 달라지면서 초반 경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9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전남도지사

김, 예비후보 등록·지사직 정치...조기 선거체제 전환 姜, 예비경선까지 시장직 유지...통합 준비·시정 병행

직무는 정치됐고, 도정은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지사는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전남 동부권을 찾는 등 곧바로 현장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에 주 선거사무소를 두고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에도 거점을 마련하는 이른바 '3축 선거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경선이 권역당원 100% 투표로 치러지지만 이후 본경선과 결선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조직과 인지도를 동

시에 끌어올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선거 공간으로 묶어 치르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강 시장은 예비경선 단계에서는 시장직을 유지한 채 시정과 통합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일정이 발표되면 후보 등록은 하겠지만, 예비경선 기간에는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본경선이 시작되는

시정에 맞춰 직무를 정치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시장은 "지금도 통합특별시장 행령을 마련해야 하고 통합 의회 구성과 조례 정비 등 준비해야 할 행정 과제가 많다"며 "예비경선 단계에서 시장직을 유지하고 선거에 나설 필요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의 이러한 판단에는 예비경선이 당일 투표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비경선 단계에서 현직을 내려놓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에 조기 돌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2면서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2026

나주

방문의 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방문의해
www.naju.go.kr/tour